

“전주한옥마을 관광특구 지정 추진을”

이완구 시의원 시정질문
관광객 유치 확대
국비 지원 등 실익 커
김 시장 “종합검토 필요”



외국인 유료입장객만 16만명에 이르고 수원시를 찾는 관광객도 600만명이 넘는 관광명소인데도 경제적 효과를 보고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성, 강원 설악, 경북 경주, 제주도 등 5개 지역의 관광특구가 지정된데 이어 1997년 지정조건 완화에 따라 서울 이태원 등 14개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됐고 2000년대 이후 서울 명동·남대문·북창 등 12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돼 2016년 3월 현재 총 13개 시·도 31개소 관광특구가 지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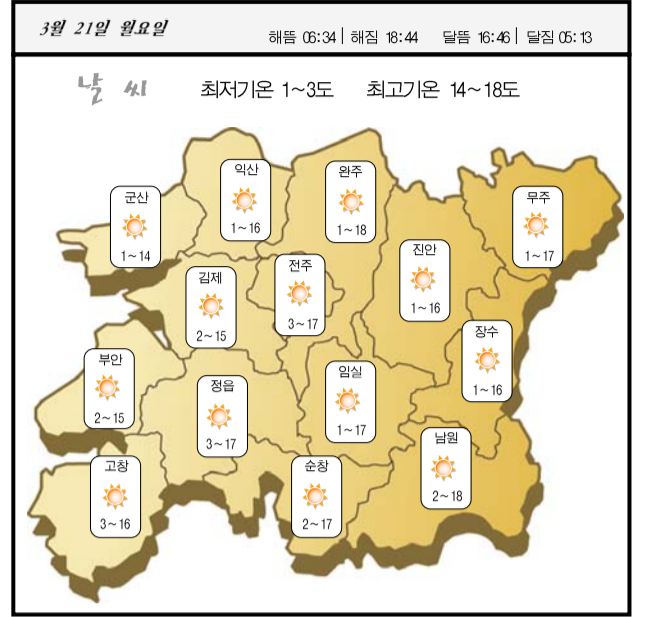
국인 관광객 유치도 더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한옥마을 관광특구 지정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관광특구 지정은 전주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지키는데 초점을 맞춘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김 시장은 “상업화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관광특구 지정보다는 한옥마을을 포함 전주시에 전체에 영향력 있는 산업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한스타일 산업특구 지정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확충했다”며 “연말에 완료되는 전주시 종합관광발전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옥마을과 덕진공원, 이충생태호수 등에 대한 관광특구 지정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의회 이완구 의원이 한옥마을 관광특구 지정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 이완구 의원(서신동)은 18일 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전라간영을 잇는 구간을 관광특구로 지정,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관광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올해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기도 수원 화성은 지난 2014년 기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수원시가 경기대 산학협력단에 관광특구 관련 용역을 의뢰한 결과 수원화성 관광특구의 투자 및 관광소비를 고려한 3개년 경제적 파급효과는 5734억5700만원, 생산유발액 2983억7700만원, 소득유발액 727억1300만원, 세수유발액 159억3000만원 등으로 집계돼 경제성이 확인됐다. 이 의원에게 따르면 관광특구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처음 관광특구 제도가 시작된 1994년 부산 해운대, 대전 유



전북도,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시행

업체당 1500만원까지 지원

전북도는 21일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상품화를 지원하는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업은 우수 아이디어는 있지만 상품화를 위한 기술 애로와 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매월 모집·선정(월 3~5 업체)해 업체당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은 2006년 (사)전주벤처기업육성특진지구 주관

으로 시행해 지난해까지 (주)삼일비디 등 323개 업체에 약 37.7억원을 지원하고 총 157억원의 매출 발생과 157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의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도는 올해 3월에도 제품 선정·평가를 거쳐 4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이후에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매월 20일~30일경 접수·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일부터 31일까지 (사)전주벤처기업육성특진지구 발전협의회 사무국(219-0841)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영수 기자

전주가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따라 간다

수원시 공무원들, 도시재생 등 시 우수정책·사례 벤치마킹

전주시의 우수한 정책과 선진사업들을 배우기 위한 국내·외 지자체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김동근 수원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30여명의 수원시 공무원들은 이날 전주의 도시재생 및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우수사례를 배우기 위해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전주를 방문했다.



전주시 우수정책 벤치마킹

지난 18일 김동근 수원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30여명의 수원시 공무원들이 전주의 도시재생 및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우수사례를 배우기 위해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전주를 방문 김승수 전주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수원시청 공무원들의 이번 전주방문은 지난해 목민관클럽 참석을 위해 전주를 방문한 연태영 수원시장이 도시계획과와 경제정책과 관광과 등 관련 부서에 전주시의 우수사업들을 벤치마킹하라는 지시를 내린데 따라 추진됐다. 제1부시장과 경제정책국장을 비롯해 11개 부서 실·국장과 과장 팀장 등으로 구성된 수원시 방문단은 이날 노송동 물양말에 위치한 도시재생거점시설인 전주도시혁신센터를 방문, 한옥마을의 성공과정과 전주시 사회적경제 및 도시재생 추진 현황,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등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또 대한민국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전주남부시장을 방문, 아시안과 청년몰 성공사례에 대해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수원시 공무원들은 이번 전주방문에서 국내 무형유산의 보고인 국립무형유산원과 대한민국 대표관광지인 한옥마을 등을 탐방했다. 이에 앞서 전주에는 최근 각종 우수사례를 배우기 위한 국내·외 지자체

공무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밤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은 지난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손꼽히면서 충남 아산시와 서울 서대문구, 금천구 등 공무원들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남부시장 아시안과 청년몰도 지난해 6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제20회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우

수사례로 각광을 받으며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20명이 육아행복도시 전주를 배우기 위해 전주지역아동복지지원센터를 방문했으며, 지난 2013년 이후 필리핀과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지방고위·중견 공무원들과 몽골 국립겨버너스카카데미(NAOG) 연수단, 인도네시아 내무부 장관 및 고위공무원단

등 해외 공무원들도 전주시 주요 정책을 배우기 위해 전주시청을 견학했다. 김동근 수원시 제1부시장은 “한옥마을 관광객의 보행동선을 한옥마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개발한 것과 지역 고유의 자산을 보존·활용하면서 지역공동체를 유지해 가는 도시재생 사례로서 수원시 뿐 아니라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김일재 행정부지사, 장수군 해빙기 안전점검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해빙기 및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 18일 장수반암면 사암 봉괴위험지구와 장수읍 수분 하해위험지구를 방문해 현장살피고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한 사암 봉괴위험지구는 장수지역 대표 관광지인 방화동 자연휴양림의 진입도로에 있는 급경사 지로서 도로 위 낙석발생 및 해빙기 붕괴위험이 있어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에 착수해 내년도까지 사면을 정비하고 낙석방지 울타리와 계단식 옹벽을 설치하는 등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낙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공사를 철저히 해달라”며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장수읍 수분 재해위험지구에 방문했다. /정영수 기자

이 지구는 농경지 주변에 호안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태풍 등 집중호우시 수분천이 범람해 인근 농경지가 침수하는 등 제방 공사와 호안 정비 등이 시급한 지구이다. 이 날 수분마을 주민들은 김 부지사에게 침수피해 현장을 설명하고 축제 및 호안정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 부지사는 “수분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비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올해 우리 도의 8대 중점업무 중 첫번째가 바로 안전전북 구현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장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에게 “해빙기와 국가안전대기간 중 대상시설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책임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